

專門大學院 教育의 質 관리

許 範

(成均館大 行政學科)

1. 問題의 發見

우리나라가 1959 년에 처음으로 專門大學院 制度를 도입한 이후 그 專攻課程과 學生의 數에 있어서 전문대학원은 크게 팽창하였다. 물론 이것은 전문대학원에 대한 社會的 需要를 급격히 증대시켜 온 時代的 傾向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시대적 경향은 社會機能의 多岐化와 專門化, 그리고 社會變動의 急速化이다. 앞의 경향은 특정 社會機能 領域을 專門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高級人力의 양성을 요구하였고, 뒤의 경향은 모든 社會機能 領域에서 管理知識과 技術의 代替循環을 短縮시킴으로써 새로이 개발되는 高級知識과 技術을 효율적으로 社會에 이전·활용하기 위한 再教育 또는 平生教育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時代的 傾向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高級 專門職 人力의 養成 또는 再教育을 그 機能으로 하는 專門大學院에 대한 社會的 需要도 더욱 급격히 증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時代的 傾向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불러 오는 專門大學院에 대한 社會的 需要는 正常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專門大學院에 대한 非正常的인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需要를 일으키는 또다른 하나의 傾向

이 있다. 그것은 지나친 高學歷 風潮이다. 大學의 學部課程이 大衆化되면서부터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大學院에 進學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正常的 그리고 非正常的의 類型의 需要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켰고, 이에 편승하여 대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풀어 보려는 목적으로 專門大學院을 外形的으로 擴張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量的 增加가 곧 質的 向上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專門大學院의 教育을 質的으로 評價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물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專門大學院에는 과연 배워야 할 사람이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입학하는가?
 - 우리나라의 專門大學院은 바람직한 教育需要에 적합한 知識과 技術을 가르치는가?
 - 우리나라의 專門大學院은 高級 專門人力의 養成 및 再教育에 적절한 方法으로 가르치는가?
 - 우리나라의 專門大學院은 教育에 필요한 教授와 施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專門大學院은 教育과 奉仕를 통하여 社會發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韓國大學教育協議

會에서 發行하는 「大學教育」 10호(1984. 7)는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專門大學院을 진단하고 처방한 적이 있다. 그때에 나온 진단은 매우 肯定的인 것이었다. 이 부정적인 진단은 오늘에도 타당하다. 그동안에 專門大學院의 教育은 오히려 質的으로 退步하여 왔다는 느낌마저 든다. 7년 전에 지적된 전문대학원의 문제점들은 시정되기보다 오히려 구조화·관례화 또는 제도화되었을 뿐이다. 위에서 던진 물음에 대한 가장 常識的인 응답은 그것이 個別的 또는 綜合的 應答인가에 상관없이 지극히 否定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오늘의 實情이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社會·政治的으로 지탄을 받아 왔지만, 현재 우리나라 專門大學院의 教育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심각한 歪曲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 問題意識을 얻기 위하여 그 構造的 問題點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원은 아직까지도 마땅한 政策的 또는 教育的 關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것은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評價의 死角地帶에 단순히 放置되어 왔다. 政府나 大學 그 어느 누구도 專門大學院에 대하여 진지하게 責任感을 느끼지 않고 있다.

둘째, 專門大學院은 아직도 그 正體性(identity)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敎科課程의 設計와 運營에서 전문대학원의 理想과 本質, 그리고 存在理由를 實現시키려는 規範的 意志는 찾아 볼 수 없다. 개념상으로 專門大學院과 一般大學院의 區分과 關係는 대단히 모호하고 혼란하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은 教育的 觀點이 아닌 經營的 觀點에서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大學에서 專門大學院은 專門教育 및 社會奉仕機關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財政充當의 道具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專門大學院은 흔히 학부 또는 일반대학원의 附設機關으로 운영하고, 전문대학원을 위하여 별도의 敎授와 敎育施設을 두지 않는 것을 당연한 經營的 合理化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社會的으로 專門大學院은 누구나 쉽게

入學하고 누구나 쉽게 修學하며 누구나 쉽게 學位를 취득할 수 있는 高等教育機關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專門大學院은 자격과 능력에 상관없이 학위를 남발하는 기관으로 謬認되고 있다. 적어도 그것은 일반대학원에 비하여 열등한 機關으로 轉落하였고 그 學位의 權威도 일반대학원의 學位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政府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확고한 基調政策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教育的 質에 대한 政策的 統制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專門大學院의 設立 認可와 定員 策定을 위하여 규범적이고 긍정적인 정책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급등하는 社會的 需要에 밀려서 大學의 要求를 너무 쉽게 수용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敎授와 施設 등의 敎育與件을 전혀 갖추지 못한 專門大學院의 濫設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點들이 共通的으로 밀어 붙여 있는 가장 根源的인 原因은 전문대학원에 대한 教育的 觀點과 規範的 指向性의 喪失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專門大學院이 그 教育的 質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문제점들은 보다 根本的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管理上의 問題가 아니라 전문대학원의 本質과 관련된 概念上의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먼저 概念次元에서 바람직한 專門大學院 教育的 目的, 內容, 그리고 方法을 規範的으로 모색하고, 이어서 政策 및 管理次元에서 그 實現方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專門大學院 教育的 本質

教育的 本質은 “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의 물음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教育的 本質은 教育的 目的, 內容, 그리고 方法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敎科課程의 기본 방향, 敎科目的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授業의 형태와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1) 敎科課程의 基本方向

흔히 전문대학원의 機能은 일반대학원의 기능

과 相對的으로 구분하여 規定한다. 이 通常의 구분에서 일반대학원의 기능이 學問에 종사할 學者의 養成과 學術研究에 있다면, 전문대학원의 그것은 産業社會에서 多岐化·專門化되어 가는 기능 분야를 실제로 管理할 수 있는 高級 專門 人力의 양성,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管理知識과 技術의 社會移轉 및 應用에 둔다. 물론 기능 면에서 이 두 機關은 서로 重複·混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劃一的·排他的으로 二元化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論難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制度와 政策面에서 이 통상적 구분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補充的 運營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전문대학원의 기능이 專門 人力의 教育과 養成, 그리고 知識의 社會的 移轉과 活用에 있다면, 그 교육의 목적은 實際的 機能分野에서 妥當한 問題를 탐색·정립·해결하는 能力의 함양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教育의 초점은 항상 實際問題에 맞추게 되고, 教育의 效果는 항상 社會的 適合性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教育의 목적, 초점, 그리고 지향성은 專門大學院 教科課程의 編成과 運營을 위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특정 기능 영역과 관련된 問題解決 能力의 함양이라는 教育의 目的은 바로 專門大學院의 存在理由 그 자체이며, 따라서 그것은 교과과정의 核心的 特性을 구성한다. 이 특성을 보다 명백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의 교과과정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선 一般大學院의 教育은 실제 문제의 해결 능력이 아니라 學問의 研究能力을 함양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教育의 초점은 실제 문제가 아니라 學術理論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그 教育의 效果도 社會的 適合性이 아니라 合理的 創造性의 확보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專門大學院과 一般大學院의 教科課程은 그 기본 방향과 성격에서 根本的인 差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教科目的 類型과 性格

專門大學院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그 교

육의 實質的인 內容은 教科目的 設計와 組織에 의하여 결정된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妥當한 教科目的 설계와 조직은 오직 教科課程의 目的과 方向에 합당할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은 學術研究 能力의 함양이 아니라 특정 機能領域에 관련된 실질적 문제를 바르게 탐색·정립·해결하는 實踐的 問題解決能力의 함양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학술 이론이 아니라 實際問題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 창조성이 아니라 社會的 適合性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目的과 方向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정·조직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類型의 교과목 영역, 즉 ① 實質問題에 관한 지식(問題指向的 교과목), ② 問題解決에 관한 지식(管理指向的 교과목) 등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構造도 實踐指向的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원은 해당 機能領域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實質問題에 관한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問題中心의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교과목으로 편성할 실질 문제의 선정은 體系的 關係性과 社會的 需要 등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實質問題의 체계적 관계성이란 그 문제가 해당 社會機能 영역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體系的 位置와 수행하는 機能, 즉 脈絡的 意義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實質問題의 사회적 수요는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政治·社會的 要求와 必要性 등을 의미한다.

體系的 關係性과 社會的 需要에 따라서 타당하고 중요한 실질 문제를 選定하고 그것을 교과목으로 設計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문제의 體系的 關係性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論理的 分析이 필요하고, 그것의 社會的 需要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政治·社會的 心理를 이해하여야 한다. 더구나 체계적 관계성에서 妥當하고 重要的 문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급속히 변동하고 있는 것이 現代社會의 一般的 傾向이다. 이 모두가 중요한 實質問題의 선

정과 妥當한 教科目的 設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안은 오히려 常識의 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전문대학원 教科目的 設計와 組織에 보다 신중한 연구를 선행시키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이 問題指向的 教科목적은 專門大學院에 본질적으로 必須的인 領域이지만, 일반대학원에 개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專門大學院이 일반대학원의 교과목을 거의 그대로 複製하여 開設하는 현실의 관행은 專門大學院의 敎育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社會機能領域의 多岐化는 불가피하게 전문대학원의 系列과 專攻을 증설시켜 갈 것이지만, 특정 機能領域에서 급증하는 중요한 實質問題와 그것에 대하여 급속히 변동하는 社會的 需要를 해당 전문대학원이 교과목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專門大學院은 가급적 많은 問題指向的 教科목적을 選擇科目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학생들은 자기의 經歷計劃과 職務需要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問題指向的 教科목적의 組織과 運營에는 무엇보다 伸縮性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축성을 週期的으로 強化시키고 결과적으로 교과목적의 社會的 適合性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方案이 선택 과목으로서의 獨立研究(independent study)의 개설이다. 이것은 正規 教科科目에서 어떤 학생이 研究하고자 하는 實質問題에 관련된 과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指導敎授의 검토와 요청에 따라 그 問題에 관한 科目을 설계·개설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獨立研究科目 제도의 導入은 전문대학원의 目的과 性格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둘째, 問題解決能力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管理指向的 教科목적 영역은 적어도 制度, 政策, 管理, 그리고 技術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管理指向的 과목들은 성격상 專攻必須 과목으로 賦課하는 것이 적절하다.

問題解決知識에 해당되는 이론, 방법, 그리고 기술은 이미 상당히 발전하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이론과 방법, 그리고 기술이 해당 機能領域의 問題解決에 適合한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 이론, 방법, 그리고 기술 등을 특정 機能領域에 적합한 교과목으로 조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반대학원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아무런 검토와 수정없이 그대로 專門大學院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專門大學院 教科목적의 設計와 組織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신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全體 교과목 體制는 必須科目(管理指向的 과목), 選擇科目(問題指向的 과목), 獨立研究科目, 그리고 學位論文으로 構造化시키되 이들 사이의 調和와 均衡이 중요하다. 이수 구분 사이의 구성 비율에 관한 測定된 原則은 있을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必須科目, 즉 管理指向的 教科목적은 最少化시키고 選擇科目, 즉 問題指向的 教科목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最大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교과목 체제의 構造的 特徵은 일반대학원의 그것과 相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專門大學院 敎育의 本質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敎育의 質的 水準의 유지 및 統制의 필요성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學位論文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문대학원의 學位論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論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論題의 妥當性은 해당 機能領域의 주요 문제를 취급하고 그 問題解決能力의 향상을 目的으로 할 때 확보될 수 있다. 학위논문 質的 水準은 실제에서 얻은 經驗과 敎育에서 習得한 知識을 統合的으로 적용함으로써 타당한 논제를 理論的 次元에서 科學的으로 정리할 때 확보될 수 있다.

3) 授業의 形態와 方法

위에서 특별히 강조하였듯이 專門大學院의 敎育은 본질적으로 問題指向的인 特性을 지닌다. 그러므로 수업의 형태와 방법도 이 特性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든 實質問題는 매우 넓은 聯關性을 지닌다. 더구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聯關性은 더욱 넓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實質問題도 하나의 學科 또는 專攻만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 실질 문제의 實踐的 解決은 항상 複數學問的 또는 聯合學問的 接近(multi or 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問題解決能力의 함양을 指向하는 전문대학원의 授業은 원칙적으로 複數學問的 또는 聯合學問的 접근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複數學問的 또는 聯合學問的 접근 수업은 과목의 目的, 內容, 그리고 性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複數講義(複數教授에 의한 강의), 意思決定세미나(the continuing decision seminar), 社會實驗 또는 現場實驗(social or field experimentation), 變動集團形成討論(strategic assumption surfacing and testing),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問題解決指向의 수업을 위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複數學問 또는 聯合學問 接近方式이다. 이밖에도 創意的인 努力에 의하여 얼마든지 많은 새로운 模型和 變形方式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學位論文의 지도와 심사에도 원칙적으로 複數 또는 聯合學問的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論文의 論題에 적합한 複數의 교수를 早期에 指導教授와 審査委員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외에 위에서 제시한 複數 또는 聯合學問的 수업과 논문 지도를 연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講究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하여 보면, 專門大學院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正體性을 지닌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教育目的, 教科課程, 教科目, 그리고 教授方法에 있어서 一般大學院과 根本的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 差異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補充的 聯關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專門大學院 教育의 診斷과 處方

모든 合理的인 評價는 먼저 評價對象을 확인

하기 위한 基準(criteria for ascertaining)과 평가 대상에 값을 주기 위한 尺度(standards for appraising)의 설정을 요구한다. 專門大學院 教育의 質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 제기하였던 물음들은 評價基準으로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基準에 따르면, 적어도 입학 전형, 교과과정과 교과목의 구조와 운영, 수업의 형태와 방법, 논문의 지도와 심사, 교육 시설과 여건, 교육의 효과와 기여도 등이 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대상에 값을 주기 위한 評價尺度는 제2장에서 규범적으로 검토한 專門大學院 教育의 本質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머리글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듯이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은 아직도 그 正體性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그 教育도 本質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規範的 基準과 尺度를 엄밀히 적용하는 데는 분명한 限界가 있음을 더더 밝히 두지 않을 수 없다.

① 入學銓衡

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적어도 '배워야 할 사람'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함께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입학 전형은 대체로 후자, 즉 수학 능력의 평가에 치중하고, 수학 능력의 평가를 위해서 英語와 專攻科目의 筆記試驗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물론 이와 같은 시험만으로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전문대학원에서 면접 시험과 서류 전형을 점수화하고 있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專門大學院에서 전자, 즉 教育需要와 修學動機의 評價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에는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 실지에는 '배워서 안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입학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문대학원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수학 능력의 평가와 教育需要 및 入學動機의 평가를 균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장 상사와 지도 교수의 추천서, 경력 증명서, 경력 계획과 연구 계획서 등의 書類審査와 지원 동기 등의 面接審査를 점수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教科課程과 教科目

현행 專門大學院의 敎科課程은 주·야간에 따라서 각각 4 내지 5학기에 24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學位論文審査에 합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 시행령이 매 학기 최대 취득 학점을 6학점으로 제한하고 대학의 재정적 고려도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이 개설하는 과목의 수는 극도로 제한되고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전체 학점도 법정 최저 학점인 24학점을 초과하기 어렵다(더구나 많은 대학에서는 제5 학기를 논문 작성 기간으로 하고 수업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교과목의 편제와 운영은 대단히 硬直되어 있다. 대체로 必須科目의 비중이 높고 選擇科目의 비중은 낮다. 많은 大學은 실제로 극히 제한된 숫자의 選擇科目만을 개설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좁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목의 설계와 조직이 전문대학원의 본질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대학원의 교과목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목의 편제와 운영이 곧 전문대학원 교육의 본질이라 할 만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규범적인 방향과 기준에 따라서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授業의 形態와 方法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은 전통적인 단독 교수의 강의 또는 단독 교수가 주재하는 세미나의 형태로 진행된다. 학위 논문의 지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複數 또는 聯合學問의 授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財政·施設·敎授가 부족한 대학의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複數 또는 聯合學問的 授業은 지나친 사치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은 전문대학

원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는 必要條件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과감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④ 敎育與件

거의 모든 大學에서 專門大學院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과 교수를 두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다만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부설 기관으로 인식되고, 그것의 운영은 교육적 관점과 규범적 논리가 아니라 경영적 관점과 재정적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良識에 관련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이 바른 良識을 회복하여 전문대학원을 敎育的 觀點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교과과정의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專任敎授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機能領域에 종사하는 高級人力을 대우 전임, 초빙 교수, 객원 교수 등으로 확보하여 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수업과 논문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해당 機能領域의 여러 專門機關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조직·운영함으로써 시설과 교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設立認可와 定員管理

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自律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교육 여건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문대학원의 인가와 정원을 책정을 위한 최저 수준의 전임 교수와 시설 등 교육 여건의 基準을 合理的으로 책정하고, 이것만을 단일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대학원 교육 여건을 基準 수준에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評價認定制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건의될 수 있다. *